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7.11.21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UNFC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23,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문 채택과 함께,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해 각 의제별 논의된 내용들을 비공식문서 형태로 합의하고 결정문의 첨부문서로 채택 -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국으로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금인 'Adaptation Fund'가 GCF와 함께 파리협약지원기금으로 합의된 것을 포함해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성과가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됨 <p style="text-align: right;">(뉴시스 11/20)</p>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기관 총 383개 ('17.11.2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기관* 가입승인 *캐나다(1), 스페인(1)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회원기관 총 46개 ('17.11.2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해강기술, APEC 기후센터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E 총 158개 ('17.11.2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티모르 NDE(환경부) 선정 <p style="text-align: right;">(CTCN, 1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102개 수처리 기술」 책자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 UNE-DHI Center, UNEP-DTU 파트너십 - 주요내용: 6개 부문*의 수자원 적응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내용 소개 및 검토 * 기후위험 및 불확실성, 가뭄, 홍수, 수질오염, 해수면 상승, 재해 대비 <p style="text-align: right;">(CTCN, 11/3) (보고서, 11/3)</p>

GCF	본부	<p>○ 「GCF-UNEP 업무협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COP 23에서 GCF와 UNEP(유엔환경계획)간 업무협약 체결. 이를 통해 향후 GCF는 CTCN과 에너지 효율, 저탄소 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재정 연계 및 협업 <p style="text-align: right;">(CTCN, 11/17)</p>
		<p>○ GCF, 자원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줄이고 아프리카 지원 늘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23에서는 그간 문제시 되어온 GCF의 복잡한 지원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GCF는 개도국이 기금확보를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균 기금확보 기간인 2년을 6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함 - 특히, 아프리카에 직접접근 기구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하여 중개기구로 흐르는 자금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p style="text-align: right;">(Climate Home News, 11/15)</p>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재)기후변화센터	<p>○ (재)기후변화센터, 지역난방공사와 독일서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세미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14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열병합발전 활용확대에 대해 논의 - 이날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냉난방과 열병합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발표. 독일측 대표단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와 정부-기업 간 상호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 <p style="text-align: right;">(파이낸셜 뉴스, 11/18)</p>

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p>○ 늦어지는 탄소배출권 제2차 기본계획, 기업 불안감 가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짓지 못해 탄소배출권 제2차 기본계획의 발표도 지연되고 있음 - 기존 6월 발표 예정이던 기본계획이 올해말로 나올 것으로 바뀌면서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내년도 예산 및 경영계획수립에 차질이 있다고 말하며, 금번 2차 계획년도부터는 1차와 다르게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정책수립을 촉구 <p style="text-align: right;">(뉴스핌, 11/14)</p>
국내	정책 일반	<p>○ 한국중부발전, CDM사업으로 획득한 탄소배출권 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보유 중인 탄소배출권 1만t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기부 - 이번에 기부하는 탄소배출권은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풍력사업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와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데 사용될 예정 <p><small>*한국중부발전: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겠다는 3020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추진 중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노후발전소 폐지, 연료전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설비(CCS) 운영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연간 약 1600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중</small></p> <p style="text-align: right;">(전기신문, 11/21)</p>
		<p>○ 광해관리공단, 기후변화대응기술 국제표준화 본격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16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산화탄소 포집·이송·지중저장 기술위원회(TC265)*에 참석 - 지자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자원화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전략기술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해왔던 광해공단은 한국의 탄소광물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기후변화대응 광해방지 융복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주도에 한국이 앞장서겠다고 밝힘 <p><small>*ISO TC265위원회: ISO TC265는 CCS분야의 설계, 건설, 환경관리, 리스크관리, 모니터링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을 비롯 미국, 호주 등 28개국이 참여하고 있음</small></p> <p style="text-align: right;">(에너지경제, 11/16)</p>

		<p>○ 한국, 기후변화대응노력 ‘매우부족’ 평가 받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평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8위, 끝에서 세 번째 순위로 최하위권을 기록 - 이와 같은 평가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 부족'으로 지적됐다. 기관은 "한국의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가 저평가의 원인"이라며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 조정한 대목은 긍정적"이라고 함 (그린포스트코리아, 11/16) <p>○ SL공사, 탄소배출권 81만tCO₂ 추가획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최근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UNFCCC가 인증한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81만 4430 톤을 추가획득 - SL공사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폐기물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헤럴드경제, 11/21)
<p>국외</p>	<p>국제</p>	<p>○ 민간 기후금융 규모, 2,430억 달러로 증가 추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최근 세계기후금융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기후금융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99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후, 기술비용의 하락과 일부 국가의 투자 축소로 인해 지난해 2,420억달러로 소폭 감소 - 주요국가는 그린본드 발행, 그린뱅크 설립 등을 통해 공공 기후금융 자원 확보와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재원 유입과 금융기법확산을 촉진중 - 민간 기후금융의 주체를 보면, 프로젝트 개발사가 가장 크며 기술성숙도의 증가로 사업위험이 줄어들어 따라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반해 한국은 2013년~2017년 10월까지 총 4개의 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진인터내셔널, 현대캐피탈)이 총 25억달러의 그린본드를 발행한 수준에 그침 (뉴시스, 11/20)

2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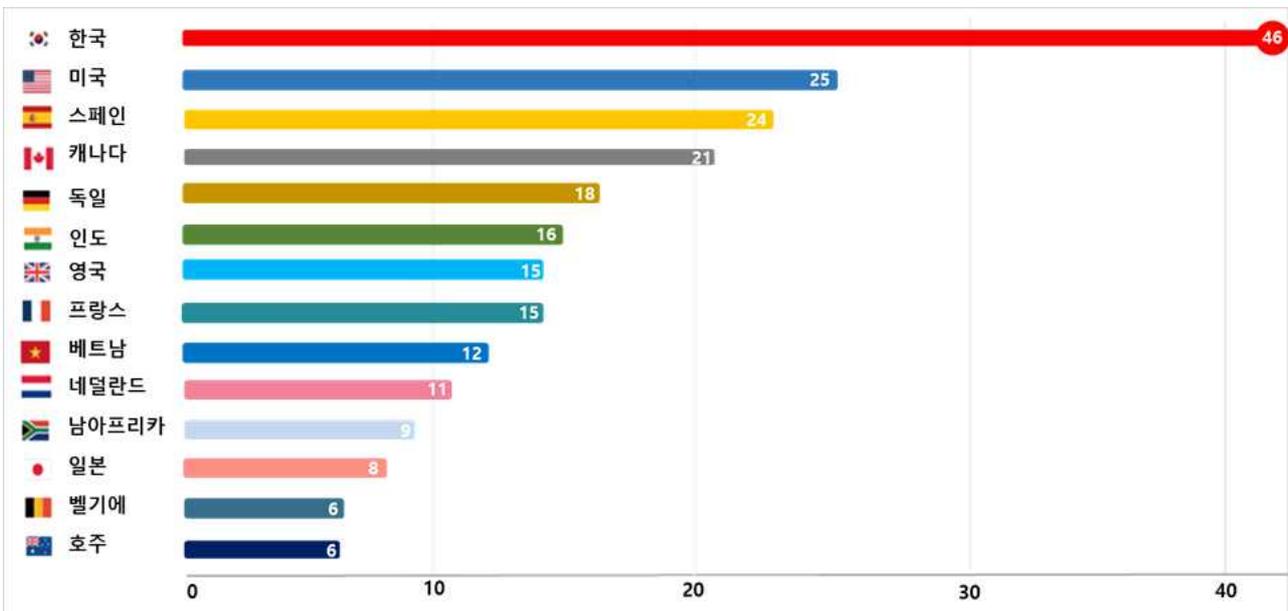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7.11.21.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70개국 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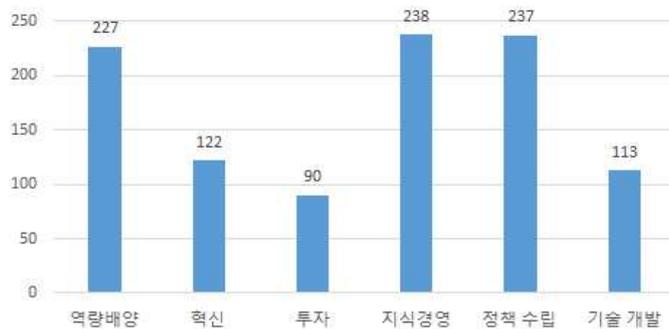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7.11.2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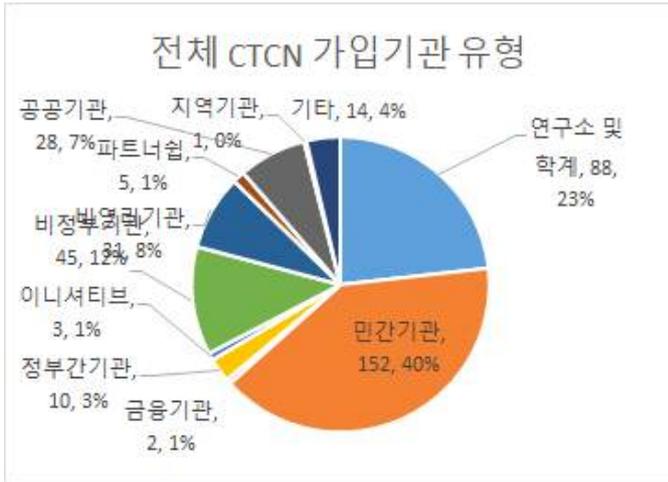
- 총 383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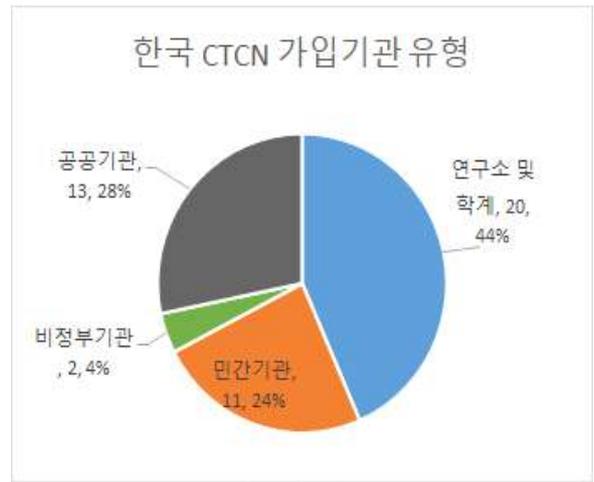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7.11.21. 현재)



<CTCN 전체 383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6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383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43건으로 4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78건(22%),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0건(12%), 29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6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0건(44%)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3건(28%)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7.11.2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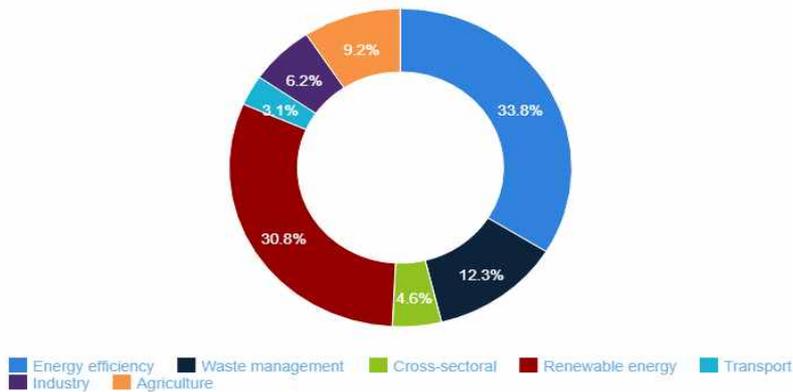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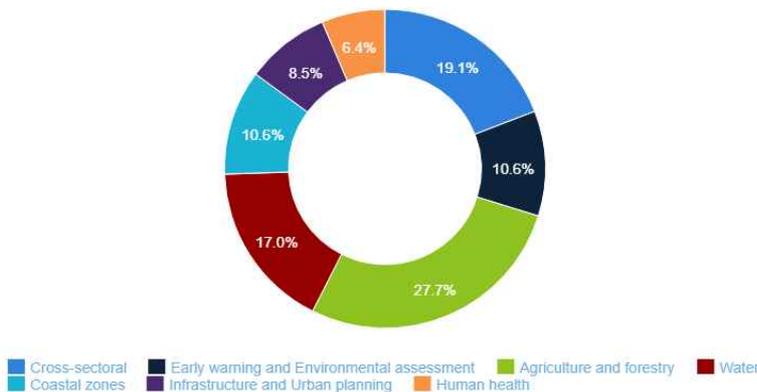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11.21 현재)

- 제출된 TA : 196개
- Active TA : 111개 (감축관련 TA-44%, 적응관련 TA-30.1%)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